

지혜 III.

사랑없는 정의를 말하는 시대

1. 솔로몬에게 임했던 하늘의 지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솔로몬에게 임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분명하다.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간의 문제(송사, 분쟁)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왕의 마음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다.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왕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진리 '사랑'이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은, 이웃을 섬기는 이타적 마음의 사랑이다.

2. 성숙함 안에서 흘러나오는 지혜

왕은 그 성숙함의 완성의 모습이다. 가장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 성숙함이란 무엇인가? 이해의 마음을 말한다. 이해는 영어로 보면 'understand' 이다. 문자 그대로 '밑에 서 있다' 라는 것이다. 진실한 이해란 무엇인가? 자기 기준에 남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아래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마음가짐이 진정한 상태의 이해이다. 또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 옆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이전보다 더 좋아진 상태를 경험한다.

성숙한 왕의 마음가짐은 '이해의 마음'이다. 송사할 만한 문제를 가져온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그들의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 이다. 이것이 왕의 마음이다.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왜 저 사람이 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성숙함은 숙성된 상태를 말한다. 왕에게는 백성들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이 성숙함 안에서 지혜는 만들어진다. 하루 아침에 지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성숙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통치이다.

3. 계시와 지혜

[에베소서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있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말씀에 기록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분은 사람에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계시의 문'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지혜의 문'이 되셨다.

(1) 계시란 무엇인가?

'수직적 영역'이다. 감추어졌던 것이 보여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다. 계시는 허구가 아니다. 보여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은 추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사도요한은 밧모섬에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했다.

[요한계시록 1:1-2]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게시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종들에게 보여진 것이다. (그 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하신 것)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 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추상적인 영역이 아니다. 자신이 본 것이다.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 자기안에 있는 확신이다. 왜냐하면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시가 어떻게 이 땅에 보여질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2) 지혜는 무엇인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계시를 통해 보여졌다. 지혜는 드러난 계시가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보았던 계시를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영역이 바로 '지혜'이다.

(3) 예수님이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본질이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땅의 언어'를 쓰셨고, '땅의 비유'를 사용 하셨으며, 무엇보다 '사람'이라는 옷을 친히 입으셨다. 그리고 사람의 시간을 자신안에 허락하셨다. 30년을 사람으로 사셨다. 놀라운 사실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능력있는 신이 모습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다.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담아 내셨다는 사실이 놀랍다.

4. 성숙한 왕, 지혜의 왕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공의와 정의는 불의함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성품이다. 놀라운 사실은 사랑은 '이해, 용납, 섬김, 용서, 희생 등'과 같은 키워드와 함께 한다면, 공의는 '심판, 판단, 분별 등'과 같은 키워드와 함께한다. 서로 다른 성격의 키워드가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 상반된 개념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 비밀은 바로 '성숙함' 안에 있다. 성숙함은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됨을 말한다. '에하드'란 서로 다른 세 분이 하나를 이루고 계신 것이다. 가장 성숙한 세 분이 서로를 섬기며, 존중하며, '하나'를 이루신다. 세 분의 '위'와 '역할'이 다르시지만 이 세 분은 완벽한 '성숙함' 안에서 하나이시다. 바로 이 '조화로움'이 왕의 성품인 '현숙한 여인'(노블 캐릭터)으로 잠언에 나타난다. 계시와 지혜가, 하늘과 땅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왕은 이 조화로움의 균형점이 되어야 한다. 사랑과 정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5. 성숙함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라.

내가 확신하는, 내가 깨달은 계시의 영역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보고 판단한,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정의만 있어서도 안 된다. 내 확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이 중요하다. 세상이 모르고 교회가 알고있는 진리의 영역이 중요하다.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의의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판단, 정의'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교만의 마음'이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여기는 종교적 마음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합당한 판단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사랑없는 정의는 상처만을 남긴다. 사랑없는 영적인 경험과 깨달음은 남을 판단하고 분리하는 종교가 된다.

[고린도전서 10:23-24]

23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24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는 위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지혜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이타적 마음이다.

계시가 중요하다. 그러나 계시를 담을 수 있는 지혜의 그릇 또한 중요하다. 지혜는 이웃을 백성을 살피는 마음이다. 그래서 단어 하나, 말 한 마디의 표현을 고민한다.

사랑 없는 정의라는 칼은 결국 상처만 남기게 한다. 일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잃게 될 것이다. 이제 ‘지혜’를 고민하자.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사용하셨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하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라는 그릇에 담았다는 사실을 고민하자.

6. 표현의 중요성

사랑의 표현, 존중의 표현, 섬김의 표현이 연습되어야 한다. 나 혼자 살면 필요없다. 그러나 왕은 이미 공인이다. 백성을 이끄는 자이며, 섬기는 자이다. 이제 옳은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적용되고 이해될 수 있는 사랑의 지혜를 구하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강성하게 될 것이다.